

# 양돈산업에서의 컨설팅의 역할

## 1. 서론

**한**국의 양돈산업도 규모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. 예를들면 사육규모 100두 이하의 농가가 78.5%를 차지하고 있으나, 전체두수의 10.3%만 보유하고 있다. 반면에 500두 이상 규모의 농가수는 5.31%에 불과하지만 전체두수의 53.7%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. 양돈산업은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공장시설과 같은 장치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. 더구나 수입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양돈의 수익성은 점차 낮아져 갈 수 밖에 없다. 따라서 양돈산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실패로 도산하고 마는 규모는 크지만 고투자, 저수익의 특징을 갖게되는 산업이 된 것이다.

이러한 양돈산업을 고수익성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



정영철 박사  
(정P&C연구소 소장)

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. 즉 국제화, 세계화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을 유지하는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. 단독으로 규모화가 어려우면 작은 규모 농장끼리 힘을 합하여 조합화와 단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. 오토바이와 승용차, 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다르고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

듯이 규모화된 양돈장과 양돈단지 경영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.

## 2. 양돈 컨설턴트의 역할

세계화란 지방국도 위주의 시대에서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다.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. 여기에 컨설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. 양돈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이론과 실무경험을 지니고 있어야함을 물론, 풍부한 정보력과 양돈산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감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. 또 대규모 양돈장 경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. 특히 컨설턴트가 쓰러린 실패의 경험을 하였을 때 더욱 값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. 옛날의 1천만원어치의 쓰러린 경험은

앞으로의 1억원, 10억원어치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컨설팅을 의뢰하는 농장의 입장은 값비싼 쓰라린 경험이 지식을 단시간에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.

양돈산업은 크게 나누어 3개의 발전단계로 나눌 수 있다.

첫째, 생산성향상 단계, 즉 모돈 1두당 출하량,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두수 등이다. 둘째는 원가절감단계,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는 질 좋은 돼지생산 단계인데, 우리나라는 아직도 첫번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. 양돈장 기술수준을 보면 산자수, 분만율이 모든 1두당 평균출하 두수가 17두인데 영국, 덴마크 등 세계적인 수준은 평균 21~22두로 일반적으로 모든 두당 4~5두가 뒤지고 있는 형편이며, 이것은 20~30%의 생산성이 낮은 셈이다. 최고 농장끼리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최고 농장의 경우 모든 1두당 24두를 출하하는데 반해 유럽의 최고 농장의 수준은 27두를 출하하고 있다. 최고 농장간에도 12~13% 뒤지는 형편이므로 평균적으로 뒤져있다. 육종 방법 또한 국가적으로 캐나다, 프랑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직, 검정방법 등에서 10년 정도가

66

**세계화란 지방국도 위주의  
시대에서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시대로  
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다.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 
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. 여기에 컨설팅의 필요성이  
있는 것이다. 양돈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
은 이론과 실무경험을 지니고 있어야함을 물론,  
풍부한 정보력과 양돈산업에 대한 정확한  
방향감과 비전을 갖고 있지  
않으면 안된다.**

99

뒤져 있다.

### 3. 결 론

한국은 수입개방에 즈음하여 어떻게 두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진국과 동시에 세번째 단계에 진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숙제를 풀어나가야만 한다. 이것은 한국축산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. 우리나라 축산업 전문기술도 이제는 소, 돼지, 닭 등 축종별로 또 경영, 영양, 육종, 시설 등 분야별로도 세분화 되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어떻게 자기의 설정에 알맞게 적용시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컨설팅 연구소의 출현은 바람직한 것

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. 또한 한국의 양돈산업의 현실은 과감한 구조개편과 생산자들의 발상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 피엔씨에서는 양돈업 및 종돈업계의 정책개발,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양돈산업 전체의 국제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. 

